

무주, 일자리 아이디어 모은다

내달 20일까지 공모전

무주군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무주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공모 신청서 작성-무주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9월 20일까지 무주군청(1층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hongsubin@korea.kr),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업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실현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사회 적합성, 일자리 창출 효과성, 제안 노력 등을 평가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200만 원을, 최우수 1명에게는 15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무주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320-2382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노상은 일자리 팀장은 "누구보다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무주군 일자리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난 1월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 72%, 취업자 수 14,500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직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등에 8백여 억 원(4년 간누계)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소의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인턴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주 로컬 잡(Job)센터를 통해 직업능력 훈련 개발 및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중장년 취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시장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1일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문예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안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화합 한마당

진안군은 21일 농촌지도자(회장 손정현)·생활개선회(회장 박옥희) 한마음 대회를 관내 기관단체장,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극복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져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농촌지도자 손정현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11명에 대한 시상과 축사 등이 이어졌고 어울 한마당에서는 초청 공연과 장기자랑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

져 농사일로 인한 피로를 잠시나마 해소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생활개선회 박옥희 회장은 "우리 모두가 도전·창조 정신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가 되어 진안농업 발전에 앞장서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농업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진안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논 타작물 재배단지 확대 조성

진안군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영구적으로 논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쌀은 평년작(530kg/10a)만 생산되어도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며 쌀 식량작물은 낮은 기계화율과 취약한 생산기반으로 재배가 감소하여 수입곡물 대비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와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타 작물 전환을 유도 중이나, 영구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2020년 1개소 10ha, 2022년 4개소 40ha를 목표로 논 타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조지화·규모화 된 콩·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를 집중 발굴 육성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유태희 부군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무주투어패스카드 반딧불축제 시즌 한정권 판매

반디나라관 추가 8곳 이용 가능, 정상가 대비 80% 할인

전북투어패스 무주통합권(이하 무주투어패스권)을 발행·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는 무주군이 이번에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코스(반디나라관)를 추가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축제 때만 시즌 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주투어패스권은 무주군 관내 8개 자유이용시설(반디나라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천문과학관, 머루와 인동굴, 무주산골영화관, 태권도원 입장·모노레일·체험관YAP)을 정상 이용가(3만5000원) 대비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무주투어패스 모바일 권(59000원)은

온라인에서, 카드(60000원)는 무주터미널 앞 관광안내소와 민남의 광장 안내소, 반디랜드 매표소에서 판매 중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최현희 관광마케팅 팀장은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무주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라며 "살아있는 반딧불이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반딧불도 보시고 무주가 자랑하는 시설들도 빠짐없이 둘러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투어패스권을 소지하고 특별할인 가맹점(47곳, 전북투어패스에서 확인 가능)으로 등록된 식당과



숙박, 체험시설을 방문하면 5~3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추석맞이 도로변 풀베기·가로수 정비 '한창'

내달 6일까지 관내 385km 구간 실시 예정

진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탑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11개 읍면에서 동시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풀베기사업은 내 달 6일까지 국도를 제외한 관내 385km 구간의 도로변 갖길과 비탈면 풀베기, 덩굴 제거, 예초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

다. 진안의 관문인 로타리 일원의 녹지공간과 시가지 내 조성된 도시 숲 47개소 22ha, 용담호 일원 꽃길 조성지 19km 구간에 대한 정비도 기간 내 완료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관내 116개 노선 317km 구간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등 6만7000주의 가로수에

대해 전지, 전정, 가지치기, 맹아제거, 가로수 주변 잡목 제거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220km 구간의 정비를 마쳤으며 2020년까지 전 구간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청정 진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도로변과 가로경관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생활체육 전국MTB/로드 자전거대회

25일 개최 1200여명 선수들 참여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MTB/로드 자전거대회가 오는 25일 장수군에서 개최된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5일 장수종합경기장 등 장수군 내 일원 로드 사이클, 로드 MTB 코스 약 90 km으로 진행된다. 경기 종목은 로드 사이클과 로드 MTB 개인전(각 7개부), 시도 단체전으로 열리며 약 12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코스는 페레이드 구간과 시합 구간으로 나뉘며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장수읍내 구간 2km는 페레이드 구간, 시합 코스는 장수읍 양산마을 앞에서 출발해 천전면, 장계면, 대곡호, 무릉고개, 번암면, 장남호, 산서면, 비행기재, 대성리, 장수종합경기장 90km 구간이다. 특히 고도차가 매우 큰 장안산 무릉고개, 팔공산 비행기재 구간은 난도가 높아 자전거 동호인들이 도전할 줄기기에 최적의 구간으로 평가된다. 군은 또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장수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고 안전 인력 약 200명을 투입해 구간별 교통통제, 응급상황 등에 대비한다. 군 관계자는 "장수군에서 개최하는 첫 자전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앞으로 전국 자전거 동호인에 사랑받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유태희 장수부군수가 관내 주요 시설과 현안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유태희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포니랜드, 능곡소하천 정비, 양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등 총 1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수렴·개선하는 등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사업단에 방문한 유 부군수는 "개발된 가공식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시장조사 상용화 할 것"과 "유치된 식품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여 관내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1차 생산기반을 보다 확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유태희 부군수는 "앞으로 장수군의 주요사업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